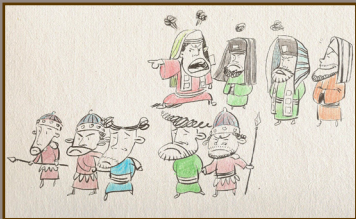


예수님을 전한다면 고난 당하는 일도 문제 없어요!



나레이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걷는 아저씨를 일으켜드린 사건!! 기억나시죠? 이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려왔어요.

사람들 어 나도요 나도! 나 좀 봐줘요~ 저두요 너무 아파요~ 나 좀 봐줘요~ 고쳐줘요~

나레이션 제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쳐졌어요.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려가고 또 고침을 받는 걸 보면서 기분이 언짢았어요. 정말 싫어했어요.

제사장 / 사두개인1 이거 정말,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잖소!?

제사장 / 사두개인2 아니 저 근본도 없는 저들을 그냥 놔둬서야 되겠소?

나레이션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어요.

제사장 / 사두개인 자 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시오

간수장 꾸물대지 말고 어서어서 들어가 ~

나레이션 어느 날 밤, 감옥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.

천사 자 일어나세요~ 감옥문 다 열어놔으니까, 그냥 몸만 나가시면 되요~ 어두우니까 머리 조심하시고~

제자들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~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잖아~?? 우리 다 같이 어서 천사를 따라 나갑시다~ 머리 조심해요 (아파서) 아~!! 흑 난 거 같은데...

천사 흑 안 낫어요... 일어나서 감옥에서 나가세요.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세요~

나레이션 천사의 도움으로 제자들은 감옥에서 무사히 나가게 되었습니다.

사두개인 뭐라고? 죄수들이 사라졌다고? 그럼 죄수들이 탈출이라도 했다는 거야?

간수장 아니... 감옥에 문이 잠겼는데 안에 사람이 없다니까요... 제가 간수로 일한 게 수십년인데...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. 뭐지? 어떻게 된 거지?

제사장 / 사두개인 뭇들 하고 있습니까~ 당신들이 감옥에 가뒀었던 그 사람들이, 그 예!수!쟁!이!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, 또요!

사두개인 뭐야? 지금 당장 저들을 잡아오시오! 당장!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,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? 어찌자고 온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을 퍼뜨리는 거야? 벌 받는 게 무섭지도 않나?

제자1 아니 우리가, 사람의 말을 복종해야겠소?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겠소?



제자2 |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.

제자3 |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. 우리가 모두 이 일의 증인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?

사두개인 | 하하하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다니.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! 저들을 매우 쳐라!

제자들 | 으악. 아~

사두개인 | 자 어때?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나? 하하 오늘은 이렇게 매만 맞고 가지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면 그때는 너희들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야.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전하지마, 알겠어? 아프지?

나레이션 | 매를 맞고 풀려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풀려났어요. 그리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, 날마다 성전과 이집 저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예수님이 구원자시고,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선포했어요.

제자1 | 여러분!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.

제자2 | 맞습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. 기름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.

제자들 | 예수님 믿으세요! 예수님 믿으세요~!